



해외보험리포트

인도네시아

김유미, 손민숙

Executive Summary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를 상회하는 젊은 인구 구조를 갖춘 아세안 최대 경제국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라보워 신정부는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하에 원자재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신수도 이전 및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기업·건설 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 수요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최근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금융권 옴니버스법(UU P2SK)」 시행 및 자본금 요건의 단계적 대폭 상향(2026년·2028년)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청(OJK)의 권한 확대와 예금보험공사(LPS)의 보험계약자 보호 기능 도입으로 시장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단순 진출보다는 강화된 규제 준수 비용을 고려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전략과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임

2023년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3%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침투도는 1.3%, 보험밀도는 66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됨.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이 57.6%, 손해보험이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손해보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생명보험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와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의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은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와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으로 크게 감소하며 생명보험 역성장을 견인함. 반면 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대규모 인프라 개발 확대, 자연재해 대비 수요 증가, 자동차 판매 회복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건조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음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인도네시아의 정식 국명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가 절대다수를 차지함¹⁾
 - 인구는 총 2억 8,444만 명²⁾으로 그중 95%가 인도네시아 토착 민족들이며, 자바족이 인구의 40%, 순다족이 16%를 차지하고 그 외 1,300여 종족이 혼재하는 다민족 국가임
 -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높고(68.11%)³⁾ 유소년 인구가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말레이어에서 파생된 인도네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나 자바어 등 650여 개의 지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인구 중 상당수가 방언 중 하나를 사용하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주로 사용됨
 -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200여 개 이상의 종교가 존재하나 이슬람교가 약 8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개신교(7%), 천주교(3%), 힌두교(2%), 불교(1%) 등이 있음
 -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이슬람교의 교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부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 교리의 실천 및 적용에 대해 관용적임
-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영토는 한반도의 약 9배 규모이며, 열대성 몬순 기후로 고온다습하고, 지리적 특성상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함⁴⁾
 - 영토 면적은 1,916,820km²으로 약 17,5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중 면적이 넓고 거주 인구가 많은 주요 5대 섬은 수마트라(Sumatra), 자바(Java), 보르네오(Borneo), 술라웨시(Sulawesi), 뉴기니(New Guinea)임

1) 외교부(2025. 10. 15.), "인도네시아 약황정보"; 최창화·김성균(202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년 예상 인구); 2024. 10. 기준

3) worldbank(<https://data.worldbank.org>); 2025. 11. 24. 기준

4) 외교부(2025. 10. 15.), "인도네시아 약황정보"; 최창화·김성균(202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 이중 자바섬은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
 - 기후는 열대성 몬순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유라시아판,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 등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위치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함
 - 약 400여 개의 화산이 존재하고 그중 150여 개가 활화산으로 세계에서 활화산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임
- 현재 수도는 자카르타(인구 약 1,046만 명)이지만,⁵⁾ 자카르타가 갖는 과밀화 및 지반 침하, 쓰나미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누산타라(Nusantara)로 천도를 진행 중임⁶⁾
-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하 중인 도시 중 하나로, 특히 도시 북부의 많은 상업 및 주거 지역은 이미 홍수로 파괴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그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매년 최대 25cm씩 침하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도시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침수될 것으로 추정됨⁷⁾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의 침하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르네오섬으로 이전을 결정함⁸⁾
 - 2019년 수도 이전을 공식 발표⁹⁾한 이후 2022년 「국가수도법¹⁰⁾」이 통과되어 수도 이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3월 「자카르타 특별지역법¹¹⁾」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수도 이전 준비가 진행됨
 - 그러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도이자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인도네시아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주요 거점으로, 수도 이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전히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부패 수준이 상당히 높고,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며, 빈부격차가 상당하다는 사회적 특징이 있으며, 여러 법이 혼재된 복합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¹²⁾
-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2024년 180개국 중 99위(100점 만점 중 37점)로 전년 대비 순위가 상당 부분 상승하였으나(2023년 기준 115위, 34점)¹³⁾ 여전히 낮은 수준임

5) 외교부(2025. 10. 15.), “인도네시아 약황정보”

6) Oxford Economics(2024. 8. 15.), “A capital is born: The impact of Indonesia moving its capital city”

7) 침하 속도에 대한 견해는 문헌마다 다름. 자세한 내용은 최창화·김성균(202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pp. 15~17 참조

8) 최창화·김성균(202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9) The Jakarta Post(2019. 8. 26.), “Jokowi announces East Kalimantan as site of new capital”

10) Law No. 3 of 2022 concerning the State Capital, UU IKN

11) Law No.2 of 2024 on Special Region of Jakarta, UU DKJ

12) 외교부(2025. 10. 15.), “인도네시아 약황정보”; 최창화·김성균(202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13)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4>); 2025. 11. 28. 기준

- 금융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낮으나, 행정 처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뇌물 요구 등 관행이 존재함
- 2025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5,074 USD로 세계에서 121위이고,¹⁴⁾ 2025년 3월 기준 전국 평균 지니계수는 0.375로¹⁵⁾ 지역 간 사회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큰 편이며,¹⁶⁾ 12년간의 의무 교육 실시로 문명률이 낮은 편임
- 2014년 S&P Global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 문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144개국 중 85위, 32%)으로 나타났으나,¹⁷⁾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과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이 공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 문해율이 65.43%로 크게 상승함¹⁸⁾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공화국으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대륙법, 지역 고유의 관습법(Adat), 이슬람 율법(Sharia), 그리고 독립 후 제정된 국법이 혼재된 복합적인 법체계를 가짐

〈표 1〉 인도네시아 주요 국가 지표(2025년 기준)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191만 6,820km ² (한반도의 9배)	인구	2억 8,444만 명(세계 4위)
생산인구 비중	68.11%	고령화 비중	7.29%
소비자물가상승률	1.8%	GDP 성장률	4.9%
GDP	1조 4,433억 USD	1인당 GDP	5,074 USD
기대 수명(남)	71.75세	기대 수명(여)	76.66세

주: 기대 수명의 경우 2024년 기준임

자료: 외교부(2025. 10. 15.), "인도네시아 약황정보"; 2024년 IMF 기준; worldbank(<https://data.worldbank.org>); 2025. 11. 24. 기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11. 30. 기준; BPS, Angka Harapan Hidup (AHH) Menurut Provinsi dan Jenis Kelamin (menggunakan UHH hasil SP2020 LF), 2024; 2025. 11. 30. 기준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66년 영사급 수교를 시작으로 1973년 대사급 수교를 시작하였으며,¹⁹⁾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경제·외교·문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양국은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²⁰⁾ 및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발 비전인 '골든 인도네시아 2045 (Visi Indonesia Emas 2045)'²¹⁾를 연결하는 핵심 파트너로 경제 및 외교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국방 및 안보 협력(KF-21 공동개발 등)도 동시에 강화 중임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10. 기준

15) BPS(2025. 7. 25.), "Gini ratio Maret 2025 tercatat sebesar 0.375"

16)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하며 통상 0.4를 넘으면 '심각한 불평등' 단계로 봄

17) Klapper, L., Lusardi, A. and van Oudheusden, O.(2014),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INSIGHTS FROM THE STANDARD & POOR'S RATINGS SERVICES GLOBAL FINANCIAL LITERACY SURVEY", S&P Global

18) OJK(2024. 10. 17.), "Survei Nasional Literasi dan Inklusi Keuangan (SNLIK) 2024"

19) 외교부(2025. 10. 15.), "인도네시아 약황정보"

20) 외교부(2023. 4. 19.),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국영문 설명자료"

21) 공식웹사이트(<https://indonesia2045.go.id/>); 2025. 11. 28. 기준

- 특히 최근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하며, 제조·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²²⁾
- 또한 K-콘텐츠 및 한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교육·관광 등 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2. 경제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5개 창설국(Founding Members)²³⁾ 중 하나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천연자원, 중산층 및 관광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²⁴⁾
 - 인도네시아는 명목 GDP 기준 세계 17위,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세계 7위로²⁵⁾ ASEAN의 GDP와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그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함²⁶⁾
 - 2023년 기준 ASEAN GDP 내 비중은 인도네시아(36.2%), 태국(13.6%), 싱가포르(13.2%), 필리핀(11.5%), 베트남(11.3%), 말레이시아(10.5%) 순임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후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²⁷⁾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1%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침체가 나타났으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1년 3.7%로 반등하였음
 - 2022년 이후 팬데믹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하였으며,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서 발간한 2025-2029 경제개발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8%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²⁸⁾

22) KOTRA(2024), “2025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2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이루어져 있음

24) Global Finance, Indonesia(<https://gfmag.com/country/indonesia-gdp-country-report/>); 2025. 11. 21. 기준

2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10. 기준

26) The ASEAN Secretariat(2024), ASEAN Key Figures 2024

27) IMF, Real GDP growth(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_WORLD/IDN); 2025. 11. 21. 기준

28) BAPPENAS(2025),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Tahun 2025-2029”

- 2024년 GDP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18.9%), 도소매업 및 차량, 오토바이 수리업(13.1%), 농업, 임업, 어업(12.6%), 건설업(10.1%), 광업 및 채석업(9.2%) 순으로²⁹⁾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유망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³⁰⁾
 - 대부분 산업군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2023년 대비 건설업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및 자본투자 등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4.9% → 7.0%)하였으며,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1.5% → 6.4%)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4.7% → 8.1%)의 성장률이 증가함
 - 특히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4.0’ 로드맵³¹⁾을 수립하고 7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망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7대 우선 육성 산업은 식음료, 화학, 섬유 봉제, 전자, 자동차, 의료기기, 제약 부문이며, 인도네시아는 중점 제조업 분야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함
 - 또한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원자재와 중간재는 물론 완제품까지 수입품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산 부품 사용 요건(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는 석유 자원 기반의 중앙집권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제 기반을 재정비하여 최근에는 다운스트림(Downstream)³²⁾ 및 인프라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함
 - 수하르토 정부 시기(1967~1998년)에는 개방적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구하며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전략 산업 육성 및 쌀 자급을 달성하였으나, 군부의 이중 기능, 정경유착 심화 및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체제가 붕괴되었음³³⁾
 - 이후 과도기(1998~2004년) 및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 시기(2004~2014년)를 거치며 개혁 및 안정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해 IMF 구조조정 요구 이행 및 급진적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달성함³⁴⁾
 -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新 투자법」 제정(2007년)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11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MP3EI³⁵⁾)을 공표하고 경제 성장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꾀하였음

29)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KOTRA(2025. 4. 8.),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및 2025년 전망”

30) KOTRA(2024), “2025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31) Kementerian Perindustrian(2018. 7. 27.), “Making Indonesia 4.0”

32) 단순 광물 수출국에서 국내에서 가공·정제·제조까지 이루어지는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조코 위도도 정부의 국가 핵심 경제전략임

33) 손기태·백유진·김민희(2010),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 권을·배희연(2007),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조치: 진출과제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기태·김민희(2009), 「인도네시아 최근 5년의 경제성과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경희(2012),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계획, MP3E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인수·한홍렬·이호생·송유철(2012),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5)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The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조코 위도도 정부 시기(2014~2024년)에는 에너지 보조금을 인프라 투자로 전환하고, 원자재 다운스트림(고부가가치화) 정책 및 신수도 이전을 통해 미리 성장 동력을 확보함³⁶⁾

○ 특히 최근 산업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소위 「옴니버스법(Omnibus Law)³⁷⁾」을 제정하여 투자, 노무, 세무 분야를 포함한 78개의 기존 법률을 일괄 개정 및 폐지하였음³⁸⁾

-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로 총 15장 18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총 76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2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방대한 내용의 법률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률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개혁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투자 인허가, 노동, 건설, 환경, 통상 등 다수 분야의 법령을 개정하였고,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정으로서 다수의 정부령 및 대통령령을 제정함
- 특히 투자법 분야에서 기존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의 대부분을 무제한 투자 개방 업종으로 변경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개방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소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를 제정 및 운영해 왔음
 - 개정을 통해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됨

○ 2024년 출범한 프라보워 신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성장 모멘텀 유지, 통상 리스크 대응이라는 삼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코위 전 대통령의 다운스트림 중심 산업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무상급식 및 공공주택 등 직접 분배 정책에 주력할 계획임³⁹⁾

- 프라보워 정부는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골든 인도네시아 2045(Visi Indonesia Emas 2045)’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함
 - 이를 위해 인구 골든타임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여 중진국을 탈피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 장기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 RPJPN 2025-2045)에

³⁶⁾ 최인아·신민아(2019),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대외 정책 방향과 산업법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³⁷⁾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³⁸⁾ 법무법인 지평(2021. 3. 24.),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KOTRA(2021. 3. 4.),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³⁹⁾ KOTRA(2025),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2019),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정부 정책 전망”

따르면 ①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소득, ② 빈곤율 및 경제 불균형 해소, ③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확대, ④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 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2045 비전 5대 목표로 함⁴⁰⁾

〈표 2〉 프라보워 신정부 핵심 정책

구분	진행 여부	핵심 정책
산업 정책	계속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계속	Making Indonesia 4.0
무역·투자 정책	계속·가속화	수출 주도 성장
	신규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통한 투자 유치
사회정책	신규	무상급식을 비롯한 Quick Win Program
	신규	공공 주택 300만 채 공급 프로젝트
경제안보 정책	신규	식량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신규	에너지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친환경 정책	계속·가속화	친환경 산업 육성
	계속·가속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인프라 정책	축소	대형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	신수도 이전

자료: KOTRA(2025),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

〈표 3〉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정책 변천

시기	경제 정책	주요 내용
수하르토 정부 (1967~1998년)	신질서 및 개발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주도 산업화: 석유 수출 대금을 기반으로 철강, 비행기 등 전략 산업 육성 및 수입대체 산업화 추진 농업 혁명: 쌀 자급자족 달성 및 농촌 인프라 개선 중앙 집권적 개발: 자카르타 중심의 성장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개방 한계: 정경유착, 관료 부패 심화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 체제 붕괴
과도기/개혁기 (1998~2004년)	IMF 구조조정 및 지방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및 공공 개혁: 부실 은행 통폐합, 국영기업 민영화, IMF 요구에 따른 긴축 재정 및 보조금 축소 지방자치법 시행(Big Bang):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전면 전환 민주화 이행: 정치적 혼란 속 경제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주력
유도요노 정부 (2004~2014년)	新 투자법 및 MP3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건전성 강화: 외채 비율 축소 및 투자등급 국가 신용도 회복 新 투자법 제정(2007)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사업기회 부여 MP3EI: 경제개발회랑(EDCs¹⁾)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전국 연결성 강화,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40) 공식 웹사이트(<https://indonesia2045.go.id/>); 2025. 11. 28. 기준

〈표 3〉 계속

시기	경제 정책	주요 내용
조코 위도도 1기 (2014~2019년)	인프라 확충 및 해양 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보조금 개혁: 유가 보조금을 과감히 삭감하여 인프라 투자 재원(고속도로, 항만, 댐 등)으로 전환 규제 완화 패키지: 16차례에 걸친 경제 부양책 발표, 투자 절차 간소화(BKPM²) 원스톱 서비스 도입 조세 사면(Tax Amnesty): 해외 은닉 자산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추진
조코 위도도 2기 (2019~2024년)	다운스트림 및 옴니버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수출 금지: 니켈 등 원광석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제련소 설립을 의무화하여 부가가치 창출(전기차 배터리 허브 전략) 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 노동 시장 유연화 및 투자 장벽 제거를 위한 법률 통합 개정 신수도(IKN³) 이전: 자카르타의 과밀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 추진
프라보워 정부 (2024년~현재)	아스타 치타 및 골든 인도네시아 2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계승(Jokowinomics 2.0): 신수도 건설 및 다운스트림 정책의 지속 및 대상 광물 확대 식량-에너지 자급: 바이오디젤(B50) 상용화 및 식량 안보 강화 복지 및 성장: 아동 무상 급식 프로그램 시행 및 연 8% 경제 성장 목표 제시

주: 1)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인도네시아 국토를 6개의 개발축(경제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 산업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국가 단위의 지역 균형 및 산업 발전 정책

2)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3) Ibu Kota Nusantara; Nusantara Capital City, 누산타라 신수도를 의미함

자료: KOTRA(2024), “2025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KOTRA(2023), “2024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최인아·신민이(2019),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대외 정책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2019),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정부 정책 전망”; 세계법제정보센터(2017), “인도네시아,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세계법제정보센터(2016), “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시행”; 강인수·한홍렬·이호생·송유철(2012),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기태·백유진·김민희(2010),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기태·김민희(2009), “인도네시아 최근 5년의 경제성과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을 배희연(2007),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조치: 진출과제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가. 보험업법 관련 기본법

- 인도네시아 보험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보험에 관한 기본법은 「UU No.40 2014⁴¹⁾」임⁴²⁾
 - 1992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보험법 No.2/1992⁴³⁾」가 보험업 규제의 근간이었으나⁴⁴⁾ 위 법률의 제정으로 No.2/1992는 폐지되고 효력을 상실함
 - 보험법과 함께 행정부령 및 OJK 규정으로 보험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금융권 옴니버스법(UU P2SK) 제정

-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의회는 금융 부문을 위한 종합 법률인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법, 이른바 ‘금융권 옴니버스법⁴⁵⁾’을 제정함⁴⁶⁾⁴⁷⁾
 - 해당 법률은 인도네시아 금융 부문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인도네시아 금융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 부문을 혁신적·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인도네시아 금융이 신뢰성 및 안정성을

41)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14 Tentang Perasuransian(Law No 40/2014 on Insurance)

42)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2022),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43)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1992 tentang Usaha Perasuransian(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2/1992)

44)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2011),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45) 2023년 제4호 금융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UU 4/2023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Law No. 4 of 2023 on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Sector)

46) CIFIC 자료실(<https://www.cific.or.kr/globalFinance/view?inford=3da5f06e-fc45-42e7-b999-7b8337ee007f&menuId=MENU00443>); 2025. 11. 30. 기준

47) https://priandoyo.wordpress.com/2023/10/23/uu-p2sk-law-4-year-2023-financial-sector-development-and-strengthening-p2skuu-p2sk/?utm_source=chatgpt.com; 2025. 11. 30. 기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법률은 총 341개 조문과 2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0년간 시행되어 온 금융 부문 관련 법률 17개를 대체함
- 동 법률은 금융 부문 혁신 기술(Inovasi Teknologi Sektor Keuangan; ITSK) 개념을 도입하여 핀테크, 암호자산, 지급결제 시스템 등을 포괄함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루피아(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OJK의 권한을 확대 및 감독 기능을 재편하였음⁴⁸⁾

- 디지털 루피아의 발행, 유통, 관리 등은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이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BI의 독립성 조항을 강화하였음
- 이전에는 상품선물거래청(이하 'Bappebti')이 암호자산 관련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나, 동 법률의 시행으로 OJK가 암호자산 및 금융 혁신 기술 활동 감독 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 또한 Bappebti에서 OJK로 이관됨
- 금융기관 대상 파산 또는 채무조정 신청 권한이 OJK 또는 BI에 전속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청산 규정 보호 조항이 신설됨
- 기존에는 경찰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금융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OJK가 단독 수사권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

○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예금보험공사(Lembaga Penjamin Simpanan, 이하 'LPS'⁴⁹⁾)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보험 보장제도(Lembaga Penjaminan Polis; LPP⁵⁰⁾)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⁵¹⁾

- LPS는 기존 예금 보장 역할을 넘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 대한 보장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잇따른 보험회사의 파산 사태(Jiwasraya, Bumiputera 등)로 하락한 보험산업 신뢰도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경우 LPS가 보험계약자 손실을 보전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LPS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함⁵²⁾
- 해당 규정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⁵³⁾

48) CIFIC 자료실(<https://www.cific.or.kr/globalFinance/view?inford=3da5f06e-fc45-42e7-b999-7b8337ee007f&menuId=MENU00443>); 2025. 11. 30. 기준

49) Indonesi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을 의미함

50) Insurance Policy Guarantee Institution을 의미함

51) UU P2SK, Pasal 79

52) UU P2SK, Pasal 80

53) UU P2SK, Pasal 329

〈표 4〉 인도네시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2/1992 : 포괄적인 형태의 보험법 제정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21/2011 on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BAPEPAM을 대체하는 OJK의 설립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40/2014 on Insurance : '신보험법'으로 1992년 제정된 보험법을 전면 개정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JK Regulation No 67/POJK.05/2016 on the Licensing and Institution of Insurance Companies, Sharia Insurance Companies, Reinsurance Companies and Sharia Reinsurance Companies : 보험회사 납입 자본 요건 향상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JK Regulation No 71/POJK.05/2016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Companies and OJK Regulation No 72/POJK.05/2016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Companies : 투자, 지급여력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규정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Regulation No 14/2018 on Foreign Ownership of Insurance Companies : 보험회사의 외국인 소유 최대 비율 80%로 확정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4/2023 On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 UU P2SK. 금융 및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No 23 of 2023 : 보험회사 및 샤리아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 단계적 향상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가. 감독 체계

○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 주체는 OJK와 BI로 이분화되어 있음⁵⁴⁾

- OJK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BI는 경제의 거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 정책·국제 결제시스템 관리, 외환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4년 이전에는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Bapepam)과 BI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1년 「금융감독청법」에 따라 설립된 OJK가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됨

⁵⁴⁾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2022),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최창희, 김성균(202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 금융 부문과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급증, 금융 불안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효과 미비,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로 인한 감독 공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함⁵⁵⁾
- OJK의 역할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며, 금융시장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⁵⁶⁾

〈그림 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의 변화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2),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나. 보험회사 인허가제도 및 사업 범위⁵⁷⁾

-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회사는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및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별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됨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상품 판매, 건강·상해 보험 상품의 판매, 및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업무가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 및 건강·상해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능함
 -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사업만 가능함
 - 보험관계회사의 경우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만 수행, 재보험중개사는 재보험 중개사업만 수행, 손해사정회사는 손해사정업만을 수행함

⁵⁵⁾ 강대창·김유미(2013), “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⁵⁶⁾ 강대창·김유미(2013), “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⁵⁷⁾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2),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 신청 가능한 법인의 유형은 유한 책임회사 및 협력 법인으로,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OJK 규정(POJK No. 23 Tahun 2023)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임⁵⁸⁾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법인과 합작 설립이 가능하나 외자계 최대 지분율은 80%로 제한됨
 - 보험회사는 운영 전 OJK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금융권 옴니버스법(UU P2SK) 도입 이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음
- 이사회는 최소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OJK의 적격성 테스트(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해야 하고, 내부 감사 부서 및 각종 위원회 구성을 요건으로 함
 - 이사회 구성은 주재원 및 인도네시아 시민일 것을 요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자여야 하며,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리스크 관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회사는 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업 자격증을 보유한 1인 이상의 보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경력 최소 3년 이상 및 최고 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험계리사를 최소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함
 - 특히 계리사의 경우 금융당국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진 준 감독관으로 위상이 격상됨
 - 내부감사실은 대표이사 직속 관리로 편제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및 리스크 모니터링 위원회, 투자위원회, 상품개발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을 두어야 함
- 현지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부등본 및 직무내용, 권한, 책임, 업무 절차 및 조직구조에 관한 문서, 주주 명부 및 첫 3년 동안의 사업실행 계획 등의 서류를 요함
 - 외국계 지점 및 사무소의 경우 OJK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 자회사(합작) 설립만을 허용함

〈그림 2〉 설립절차 흐름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2),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⁵⁸⁾ POJK No. 23 Tahun 2023, Pasal 56

다.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최근 발표된 OJK 규정(POJK No. 23 Tahun 2023⁵⁹⁾)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임
 - 2023년 OJK는 자본, 제도 및 운영에 관하여 한층 강화된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존 보험회사들은 그 규모에 따라 1차 시한(2026. 12. 31.) 및 2차 시한(2028. 12. 31.)까지 단계별로 자본금을 늘려야 함⁶⁰⁾
 - 기존 보험회사 최소 납입자본금은 1,500억 루피아였으나⁶¹⁾ 일반보험회사(KPPE 1⁶²⁾)의 경우 1차 시한까지 2,500억 루피아, 2차 시한까지 5,000억 루피아를, 대형보험회사(KPPE 2⁶³⁾)의 경우 2차 시한까지 1조 루피아를 요함⁶⁴⁾
 - 사리아 보험의 경우 1차 시한까지는 1,000억 루피아로 기존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되, 2차 시한까지 KPPE 1의 경우 2,000억 루피아, KPPE 2의 경우 5,000억 루피아로 자본금을 늘려야 함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지급능력수준, 책임준비금, 투자적합성, 자산 및 기타 재무건전성과 연관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⁶⁵⁾ 보험회사는 항상 위험기반 최소자본요건(Modal Minimum Berbasis Risiko, 이하 'MMBR')⁶⁶⁾ 100% 이상의 Solvency Level을 유지해야 하고, 120% 이상의 자체 Solvency Level 목표치를 설정 및 유지하여야 함
 - MMBR의 산정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보험위험 및 운영위험을 고려함
 - 보험회사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대재해준비금으로 책임준비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최소 자산은 1,000억 루피아임
 - 위 자산 규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환원이 금지됨
 - 최근 POJK No. 5 Tahun 2023의 시행으로 투자자산 평가가 보수화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포트폴리오 하에서도 RBC 비율 준수 난이도가 상승함⁶⁷⁾

59) Regulation No 23 of 2023

60) 회사의 종류를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사리아 보험회사, 사리아 재보험회사로 구분하고, 그 분류에 따라 금액의 차등이 있음

61)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2022),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62) Kelompok Perusahaan Perasuransian 1; 기본적인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함

63) Kelompok Perusahaan Perasuransian 2;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상품(장기 보험, 투자연계형 등)까지 판매 가능함

64) POJK No. 23 Tahun 2023, Pasal 56

65) OJK규정 No.71/POJK.05/2016, OJK Regulation No.71/POJK.05/2016

66) Risk-based Minimum Capital. 한국의 RBC 제도(Risk-Based Capital)와 동일한 개념임

67) Pasal 5 ayat (5); 모든 투자자산의 평가를 인도네시아 회계사협회가 제정한 공식 회계 기준(Standar Akuntansi Keuangan; SAK)으로 통일하고 강화하여 자산평가 방식이 시장가치 중심으로 전환됨

라. 소비자보호 규제

- OJK는 금융권 옴니버스법(UU P2SK)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험산업 실현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⁶⁸⁾
 - 2022년 5월에는 상품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POJK No 6/2022)을 발표하고 금융상품, 서비스 및 소비자 데이터·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2024년 1월에는 금융 소비자 및 대중 보호에 관한 규정(POJK No 22/2023)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영업 행위에 대한 OJK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법령을 대체함
 - 보험회사 및 대리점에 관한 규정(OJK Reg No 36/2024) 및 중개사에 관한 규정(Reg No 28/2022)을 통해 영업 행위 및 모집 채널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투자연계형 상품(Unit-linked) 관련 민원 급증에 대응하여 유니트링크(Produk Asuransi Yang Dikaitkan Dengan Investasi; PAYDI) 규제(Circular No 5/SEOJK.05/2022)를 실시함
 -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금융기관(보험 포함)을 위한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서비스를 운영 중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80%로 제한됨⁶⁹⁾⁷⁰⁾
 - 해당 규정은 신규 진입 또는 기존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하려는 외국계 자본에 적용됨
 - 예외적으로 2018년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외국인 지분이 80%를 초과한 기존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외국 보험회사는 단독 지점(Branch) 형태가 아닌, 현지 파트너와 합작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함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보험회사는 OJK가 정한 인정 자산(Admitted Assets) 목록 내에서만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주식·부동산 등 각 자산군별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⁷¹⁾⁷²⁾

⁶⁸⁾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⁶⁹⁾ Government Regulation No 14/ 2018 on Foreign Ownership of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 No 3/2020

⁷⁰⁾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자산 안정성 확보와 국가 개발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를 인도네시아 국채(Surat Berharga Negara; SBN)로 보유할 의무가 있음
-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계열사(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 및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됨

〈표 5〉 투자 한도가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와 한도

자산 종류	한도
은행 정기예금 (당좌예금, 만기 1개월 이하 정기예금 포함)	각 은행별 최대 20%
각 농촌은행 및 농촌 샤리아은행의 정기예금	총 투자금의 최대 1%, 총 투자금의 최대 5%까지
각 은행별 예금증서	정기예금 포함 최대 50%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각 발행인 총액의 10%, 총 투자액의 40%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채권	각 발행인 총액의 20%, 총 투자액의 50%
인도네시아가 회원 또는 주주가 된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중기 채권 및 상업 수표	각 발행자별 총액의 20%, 총액의 40%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 문서	총 투자의 10%
뮤추얼 펀드	투자 관리자당 총액의 20%, 총 투자액의 50%
자산담보증권	투자 관리자당 총 투자액의 10%, 총 투자액의 20%
집합투자계약 형태의 부동산펀드	투자 관리자당 총 투자액의 10%, 총 투자액의 20%
투자용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 또는 충상권이 있는 토지	총 투자액의 20%, 토지 투자액의 최대 33.3%
순금	총 투자의 10%
담보권으로 담보된 대출	총 투자의 10%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사. 의무보험

- 기존에 기초적인 교통사고 분담금과 근로자 산재, 특정 산업(항공, 무역, 중개사) 위주의 의무보험이 있었으며, 향후 자동차 책임보험과 재난 및 화재 보험 등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⁷³⁾
 - 2025년 1월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제3자 책임보험(Motor Third Party Liability; MTPL)의 도입이 예

71) POJK No. 71/POJK.05/2016, POJK No. 5/2023

72)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73)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정되어 있었으나, OJK의 규정 미비로 지연되고 있음

-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콘서트, 축구 경기 등)에 대한 보험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금융권 옴니버스법(UU P2SK)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한 주택 보험과 화재 보험도 의무보험 범주에 포함될 예정임

〈표 6〉 인도네시아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 승객을 위한 개인 상해 보험	• 대중교통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승객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간 약 9.15 USD의 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도로 또는 해상 수단 이용 중 사망 시 1,600 USD, 항공 수단 이용 중 사망 시 3,200 USD를 한도로 보상함
항공기 운항자를 위한 선체 및 책임 보험	• Article 62 of Law No 1/2009 on Aviation
보험 및 재보험 중개인을 위한 전문 보상 보험	• 신규 면허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이상의 보상 한도를 가진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면허 소지자(2016년 규정 이전)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최소 10억 루피아(약 64,000달러) 한도의 보험을 유지해야 함
근로자 보상 (국가 제도)	• 2015년 7월부터 규정이 강화되어, 모든 민간 기업은 근로자 산재 보상 프로그램(Jaminan Kecelakaan Kerja; JKK)에 의무적으로 가입
면허 드론에 대한 책임 보험	• 드론 면허 신청 시 보험 서류 제출 필요
선박 소유자의 해양 기름 오염에 대한 책임 (재정적 보증 또는 보험)	• 국제 협약에 따라 2,000톤 이상의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 소유주는 기름 유출 사고 시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이나 재정 보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함
석탄 및 원유의 해상 화물 수출 보험과 정부 조달을 위한 쌀 및 기타 수입품 수입 보험 (해상 운송 시)	• 쌀 수입 및 정부 조달 물품 수입(해상 운송 시)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보험회사(혹은 컨소시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아. 사회보장법

- 2004년 제정된 법률 제40호(Law No 40/2004)가 국가사회보장시스템(SJSN)의 토대를 마련한 기본법(Umbrella Law)이며, 2011년 제정된 법률 제24호(Law No 24/2011)에 따라 기존에 있던 4개의 사회보험 제도가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됨⁷⁴⁾
 - 2015년 6~7월에 걸쳐 공포된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들은 근로자(고용인) 대상 제도(BPJS Employment) 산하의 산재 및 사망 보장, 연금 보장, 노령 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

74)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옴니버스법(Omnibus Law, 2020)으로 실업급여(Jaminan Kehilangan Pekerjaan, JKP)가 도입되었으며, 고용 종료 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상한선이 축소되었음
- 정부령(GR No 49/2023)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3가지 카테고리(국가 공무원, 일반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로 정의하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국가 건강보장제도(BPJS Health)가 아닌 BPJS Employment가 부담함을 명시함
- 「모자 보건법(Law No 4/2024)」상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확대하고 직장 내 모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보건법(Law No 17/2023)」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31개 기존 규정을 통합 및 대체함

〈표 7〉 인도네시아 주요 사회보장법

연도	관련 내용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13/2003 concerning Manpower : 고용 종료 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와 함께 병가 수당 규정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40/2004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Body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SJSN) : 보편적 의료보험, 근로자 보상, 노령연금, 사망급여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토대를 마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24/2011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Body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the BPJS Law) : 특정 근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4개 사회보험 제도를 비영리 사회보장국(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BPJS)이 관리하는 단일 국가사회보장제도(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SJSN)로 통합하고, 건강(BPJS Health)과 고용 혜택(BPJS Employment)의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Regulation No 44/2015 : BPJS Employment에 따라 제정된 개정된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의 법적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Regulation No 45/2015 : BPJS Employment에 따라 설립된 의무적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퇴직 제도인 연금 보장 프로그램(Program Jaminan Pensiun/JP)의 법적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Regulation No 46/2015 : BPJS Employment에 따라 설립된 의무적 정의 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 제도인 노령 보장 프로그램(Program Jaminan Hari Tua/JHT)의 법적 효력 발생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on Job Creation Law No 11/2020 : Omnibus Law.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을 통합 및 개정, 사회보장제도(BPJS Employment)에 실업 수당(JKP)을 도입하고 해고 수당(퇴직금)을 감액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Regulation No 49/2023 : 근로자를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고, 일자리 상실 보장 프로그램(JKP)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혜택 프로그램(JKK)과 유족 보상 프로그램(Jaminan Kematian: JKM)의 적격 직원 범주를 정의함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III

보험시장 현황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0.3%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34위를 기록함
 -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184억 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2위), 일본(4위), 한국(7위), 대만(14위), 싱가포르(22위), 말레이시아(32위) 등에 이어 열 번째로 큰 시장임
 -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전 세계 생명보험료의 0.4%를 차지하며 세계 31위, 손해보험은 전 세계 손해보험료의 0.2% 규모로 세계 38위에 위치함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보험침투도는 1.3%, 보험밀도는 66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업권별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이 약 0.8%, 손해보험이 약 0.6%이며,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이 38달러, 손해보험이 28달러로 나타남

〈표 8〉 아시아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	시장규모 (백만 달러)	보험침투도 (%)	보험밀도 (달러)
중국	2위	10.1	723,664	3.9	508
일본	4위	5.0	362,719	8.9	2,938
한국	7위	2.6	185,917	11.0	3,603
인도	10위	1.9	135,958	3.7	95
대만	14위	1.1	78,077	10.3	3,307
홍콩	16위	0.9	65,692	17.2	8,769
싱가포르	22위	0.6	43,168	9.2	7,799
태국	27위	0.4	26,380	5.3	384
말레이시아	32위	0.3	20,237	5.2	590
인도네시아	34위	0.3	18,353	1.3	66

주: 시장 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 2023년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57.6%, 손해보험 4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축소되는 흐름이 지속됨
 - 생명보험 보험료는 2019년 164억 달러에서 2023년 106억 달러로 감소하여 연평균 -10.3%의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전체 보험료 중 생명보험 비중은 같은 기간 하락세를 이어감
 -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며, 시장 비중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보험료는 2019년 65억 달러에서 2023년 7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4.7% 성장하였으며, 전체보험시장에서의 비중도 28.4%에서 42.4%로 14%p 상승함

〈표 9〉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	16,362 (71.6)	14,866 (72.4)	13,210 (68.0)	11,718 (62.3)	10,576 (57.6)
손해보험	6,478 (28.4)	5,676 (27.6)	6,206 (32.0)	6,856 (37.7)	7,778 (42.4)
전체	22,840	20,542	19,417	18,574	18,353
보험료 성장률	3.5	-10.1	-5.5	-4.3	-1.2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47개의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생명보험회사 57개, 손해보험회사 78개, 재보험회사 8개가 활동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는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설립되는 합작회사와 순수 인도네시아계 회사로 구분됨
 - 생명보험회사 57개 중 인도네시아계는 34개, 합작회사는 23개이며, 손해보험회사 78개 중 인도네시아계는 55개, 합작회사는 23개임
- 인도네시아에는 샤리아 생명보험회사 9개, 샤리아 손해보험회사 6개, 샤리아 재보험회사는 4개 등 총 59개의 샤리아 보험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샤리아 보험은 샤리아(Shariah) 원칙에 따라 가입자 간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보험회사는 위험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가입자의 기여금을 관리·운용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함
 - 이슬람 율법은 도박, 투기, 이자 수취,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금지하기 때문에 샤리아 보험회사는 주류·담배·돼지고기·군수산업 등 금기 산업에 투자할 수 없고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없음

〈표 10〉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현황(2019~2023년)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회사	60	59	60	59	57
손해보험회사	79	77	77	78	78
재보험회사	7	7	7	8	8
사회보험회사	2	2	2	2	2
공적보험회사 (군인, 공무원 보험 등)	3	3	3	3	2
등록 보험회사 수	151	148	149	150	147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표 11〉 인도네시아 샤리아 보험회사 현황(2019~2023년)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회사	7	7	7	8	9
손해보험회사	5	5	6	6	6
재보험회사	3	4	4	4	4
사회보험회사	23	23	23	21	21
공적보험회사 (군인, 공무원 보험 등)	24	21	20	19	19
등록 보험회사 수	62	60	60	58	59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177조 루피아를 기록함
 -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가계소득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에는 자본시장 회복과 투자연계형(Unit-linked) 보험상품 판매 확대의 영향으로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됨
 - 2023년 생명보험 총자산은 619조 루피아로 보험산업 전체 자산의 72.7%를 차지함

〈표 12〉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조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보험료	194.27 (-1.3)	185.84 (-4.3)	204.78 (10.2)	190.74 (-6.9)	176.90 (-7.3)
총자산	574.59	575.09	631.69	617.63	618.58

주: 1) 샤리아 생명보험 포함

2)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샤리아 생명보험을 제외한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61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7.5%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40조 루피아, 정기보험은 6.9% 증가한 18조 루피아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두 번째로 큰 종목이며, 정기보험 비중은 11% 수준임
 - 상해·건강보험은 의료비 상승과 건강 보장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20조 루피아를 기록함
 - 상해·건강보험 비중은 2019년 7%에서 2023년 13%로 6%p 확대됨
 - Unit-linked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4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2년 규제 강화와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0% 감소한 76조 루피아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금융상품 다양성이 제한적인 편이며,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 중산층 확대에 따라 간접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을 저축·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Unit-linked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⁷⁵⁾
 - 그러나 2018년 이후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관련 민원 분쟁이 증가하자 OJK는 2022년 「SEOJK 5/2022」를 제정해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에 대해 상품 설명 의무, 적합성 평가, 투자운용 규제, 공시 기준 등을 강화하며 판매·운용·공시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⁷⁵⁾ 6WRResearch(2025. 4.), "Indonesia Life Insurance Market (2025-2031)"

〈표 1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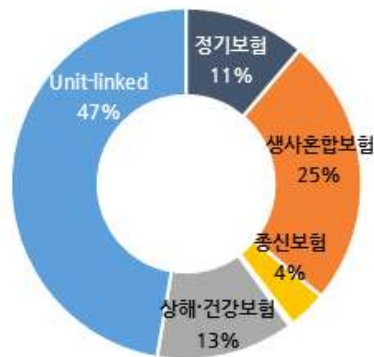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기보험	14,617 (17.6)	13,958 (-4.5)	17,391 (24.6)	16,852 (-3.1)	18,014 (6.9)
생사혼합보험	40,175 (-20.0)	32,398 (-18.4)	37,104 (13.1)	37,205 (0.3)	39,945 (7.4)
종신보험	2,601 (37.2)	3,020 (16.1)	3,205 (6.1)	4,251 (32.6)	5,767 (35.7)
연금보험	1,595 (17.6)	1,163 (-27.1)	794 (-31.7)	938 (18.1)	572 (-39.0)
상해-건강보험	12,262 (14.3)	12,284 (0.2)	14,179 (15.4)	17,014 (20.0)	20,406 (19.9)
Unit-linked	113,892 (10.9)	109,802 (-3.6)	114,425 (4.2)	97,636 (-14.7)	76,128 (-22.0)
합계	185,143 (3.2)	173,025 (-6.5)	186,642 (7.9)	173,896 (-6.8)	160,831 (-7.5)

주: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그림 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2023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6.2%, 상위 10개사는 70.2%로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상위 10개사 중 7개사가 외국-인도네시아 합작회사로, 합작 생명보험회사들의 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상위 10개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평균 -8.4%이며, 이 중 6개사는 보험료가 감소함

〈표 14〉 인도네시아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IDR, %)

순위	회사명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PT Prudential Life Assurance	합작	19,782	11.4	19,882	12.4	0.5
2	PT Asuransi Allianz Life Indonesia	합작	18,072	10.4	19,864	12.4	9.9
3	PT Indolife Pensionsama	인니계	12,186	7.0	11,993	7.5	-1.6
4	PT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s	합작	12,225	7.0	11,704	7.3	-4.2
5	PT Asuransi BRI Life	합작	10,672	6.1	10,913	6.8	2.3
6	PT Asuransi Jiwa Manulife Indonesia	합작	10,425	6.0	9,879	6.1	-5.2
7	PT AIA Financial	합작	11,323	6.5	9,877	6.1	-12.8
8	PT Asuransi Simas Jiwa	인니계	13,882	8.0	7,299	4.5	-47.4
9	PT Asuransi Jiwa Astra	인니계	5,965	3.4	6,077	3.8	1.9
10	PT Capital Life Indonesia	합작	8,703	5.0	5,453	3.4	-37.4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70.9		70.2		-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41.9		46.2		-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판매채널 중 방카슈랑스 비중이 48%로 가장 높고 보험설계사 채널이 29%로 뒤를 이음

-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은행과 제휴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은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초기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아 은행의 판매 유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Unit-linked 판매가 더욱 확대됨

〈표 15〉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7~2021년)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설계사(Agent)	37	40	29	22	29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44	42	50	62	48
기타	18	18	21	16	23

주: 2025년 기준 업데이트된 판매채널시장 자료는 2021년이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표 16〉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판매 사례

구분	제휴 은행	특징
PT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s	Bank Mandiri	Bank Mandiri와 AXA의 합작사로, 대형 상업은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PT Asuransi Allianz Life Indonesia	Maybank Indonesia, HSBC, QNB Indonesia, Bank Mega 등 다수 은행	글로벌 보험그룹이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투자연계형 보험상품과 크레딧 라이프(대출과 생명보험 결합상품)를 판매하고 있음
PT AIA Financial	Bank Central Asia(BCA)	BCA와의 제휴를 통해 투자연계형 상품을 제공하며, 중산층·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PT Asuransi Jiwa Astra	PermataBank / PermataBank UUS (이슬람 창구)	2014년부터 PermataBank와 제휴해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PermataBank UUS를 통해 샤리아 보험상품까지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자료: 저자가 각 보험회사 상품을 참고하여 작성함

○ 2023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65.8% 감소함

- 보유경과보험료는 151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7.3% 감소한 반면, 총보험금과 총사업비는 각각 155조 루피아(2.5%), 43조 루피아(10.5%)로 증가하여 보험영업 관련 손익이 악화됨
- 또한 최근 5년간 투자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비중이 높은 시장 특성상 투자 수익·평가손익의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침

〈표 17〉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손익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ID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수입	216,467	188,498	214,468	188,693	186,849
보유경과보험료	180,311	165,375	178,492	163,117	151,272
투자 수입	31,359	17,484	26,302	21,021	30,876
기타 수입	4,797	5,639	9,675	4,555	4,702
총보험금	145,089	145,420	164,467	151,238	154,949
총사업비	41,651	42,234	37,073	38,993	43,076
자산가치변동	22,582	-4,357	5,829	-13,433	-15,950
세전소득	7,146	5,202	7,099	11,895	4,773
세금	2,099	3,927	3,362	1,712	1,285
당기순익	5,047	1,275	3,737	10,184	3,488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운용자산은 채권과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운용자산 중 채권은 218조 루피아로 가장 높은 비중(42.0%)을 차지하였고 주식은 142조 루피아로 27.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21년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뮤추얼 펀드는 글로벌 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3.6%에서 2023년 14.5%로 크게 축소됨
- 대출자산 비중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나 절대 규모는 2019년 대비 증가함
- 총 운용자산은 2019년 484조 루피아에서 2023년 519조 루피아로 약 12% 성장함

〈표 18〉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34,081 (7.0)	31,561 (6.7)	37,124 (7.1)	40,262 (7.8)	36,327 (7.0)
주식	147,502 (30.5)	137,900 (29.4)	142,747 (27.2)	148,586 (28.9)	142,410 (27.4)
뮤추얼 펀드	162,633 (33.6)	152,897 (32.6)	162,695 (31.0)	101,952 (19.8)	75,182 (14.5)
채권	110,196 (22.8)	121,607 (25.9)	139,200 (26.5)	178,776 (34.8)	217,936 (42.0)
대출	10,415 (2.2)	10,656 (2.3)	23,801 (4.5)	23,330 (4.5)	25,266 (4.9)
부동산	15,146 (3.1)	11,117 (2.4)	16,189 (3.1)	17,084 (3.3)	17,812 (3.4)
기타	3,794 (0.8)	3,779 (0.8)	3,798 (0.7)	4,307 (0.8)	4,313 (0.8)
총 운용자산	483,767	469,517	525,554	514,297	519,246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2023년 기준 샤리아 생명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050만 건으로 전체 생명보험의 25% 수준이며,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샤리아 생명보험 보험료는 2019년 14조 루피아에서 2023년 20조 루피아로 연평균 9.5%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0% 증가하여 17조 루피아를 기록함
- 2023년 샤리아 생명보험 자산 규모는 33조 루피아이며, 투자 규모는 27조 루피아로 나타남

〈표 19〉 인도네시아 샤리아 생명보험 통계(2019~2023년)

(단위: 건, 조 ID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유계약 수	11,953,610	9,501,106	6,602,085	11,576,603	10,504,591
보험료	13.96	15.01	20.65	21.33	20.06
보험금	9.24	11.57	18.46	17.64	17.33
투자 규모	34.4	31.57	29.48	29.09	26.67
자산 규모	37.89	36.17	34.61	34.95	32.88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25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
 - 2023년 손해보험 총자산은 233조 루피아로 보험산업 전체 자산의 27.3%를 차지함

〈표 20〉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조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원수보험료	89.52 (15.6)	92.51 (3.8)	91.09 (-2.0)	102.79 (12.8)	124.87 (21.5)
총자산	164.6	173.7	190.1	200.4	232.7

주: 1) 샤리아 손해보험 포함
2)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샤리아 손해보험을 제외한 2023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03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6.1% 증가함
 - 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물보험은 누산타라 신수도(IKN)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와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수요 증가로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세 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신차 판매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19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제3자 책임보험(TPL)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증가적으로 수요

확대가 전망됨

- 건설·기계보험은 도로·발전소·산업단지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에서의 보험 가입 요건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8% 증가함
- 해상·항공보험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9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신용·보증보험도 전년 대비 39.5% 증가한 21조 루피아로 크게 증가함
- 상해·건강보험 비중은 1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의료비 상승과 건강 보장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한 10조 루피아를 기록함

〈표 21〉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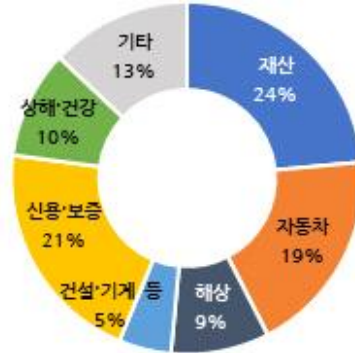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물	17,684 (7.3)	17,927 (1.4)	18,465 (3.0)	21,997 (19.1)	24,222 (10.1)
자동차	18,728 (0.8)	14,713 (-21.4)	15,455 (5.0)	17,790 (15.1)	19,424 (9.2)
해상·항공 등	6,697 (5.3)	6,652 (-0.7)	5,850 (-12.0)	7,929 (35.5)	9,308 (17.4)
건설·기계 등	2,720 (10.6)	2,361 (-13.2)	2,836 (20.1)	2,993 (5.5)	4,963 (65.8)
신용·보증	14,392 (54.9)	12,614 (-12.4)	15,074 (19.5)	15,339 (1.8)	21,392 (39.5)
상해·건강	6,125 (9.1)	7,077 (15.6)	7,196 (1.7)	8,255 (14.7)	10,230 (23.9)
기타	8,185 (7.4)	5,697 (-30.4)	6,395 (12.2)	7,299 (14.1)	13,340 (82.8)
합계	74,531 (12.2)	67,042 (-10.0)	71,271 (6.3)	81,602 (14.5)	102,879 (26.1)

주: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그림 4〉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2023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31.3%, 상위 10개사는 49.1%로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생명보험과 달리 상위 10개사 중 8개사가 순수 인도네시아계 회사로 구성됨
- 2023년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평균 -8.4%를 기록했으며, 이 중 6개사는 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인도네시아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IDR, %)

순위	회사명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PT Asuransi Sinar Mas	인니계	9,562	8.8	9,257	10.9	3.3
2	PT Asuransi Kredit Indonesia	인니계	7,303	6.7	5,923	7.0	23.3
3	PT Asuransi Astra Buana	인니계	6,787	6.2	5,667	6.7	20.0
4	PT Asuransi Bangun Askrida	인니계	5,512	5.1	5,220	6.1	5.6
5	PT Tugu Pratama Indonesia	합작	5,043	4.6	-	-	-
6	PT Asuransi Kerugian Jasa Raharja	인니계	4,855	4.5	-	-	-
7	PT Asuransi Central Asia	인니계	4,444	4.1	3,422	4.0	30.0
8	PT Lippo General Insurance Tbk.	합작	3,474	3.2	2,595	3.0	33.9
9	PT Asuransi Jasa Indonesia	인니계	3,309	3.0	3,250	3.8	1.8
10	PT BRI Asuransi Indonesia	인니계	3,256	3.0	2,566	3.0	26.9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44.5		49.1		-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30.6		31.3		-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손해보험 손해율은 62.6%로 전년 대비 5.4%p 상승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재물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증가함

- 최근 5년간 손해율은 60% 내외에서 등락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까지 상승한 후 2022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재물보험 지급보험금은 6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1.4% 감소했으나, 해상·항공보험(15.8%), 신용·보증보험(14.6%), 자동차보험(10.7%)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의료비 상승, 기후 변화에 따른 질병 증가, 건강 보장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9년 13.4%에서 2023년 16.4%로 확대됨

〈표 23〉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금 지급액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물	5,129 (-9.4)	6,144 (19.8)	5,765 (-6.2)	7,757 (34.6)	6,097 (-21.4)
자동차	8,068 (3.1)	7,176 (-11.1)	5,830 (-18.8)	6,305 (8.1)	6,981 (10.7)
해상·항공 등	2,664 (11.4)	3,005 (12.7)	2,218 (-26.2)	2,570 (15.9)	2,976 (15.8)
건설·기계 등	1,231 (7.7)	1,402 (13.9)	1,120 (-20.2)	1,240 (10.8)	1,346 (8.5)
신용·보증	8,162 (66.9)	7,564 (-7.3)	8,280 (9.5)	11,408 (37.8)	13,076 (14.6)
상해·건강	4,356 (18.5)	4,318 (-0.9)	4,769 (10.4)	6,317 (32.5)	7,121 (12.7)
기타	2,869 (19.4)	1,574 (-45.1)	1,350 (-14.2)	1,424 (5.5)	5,703 (300.5)
합계	32,480 (16.0)	31,180 (-4.0)	29,332 (-5.9)	37,021 (26.2)	43,300 (17.0)
손해율	56.8	61.2	63.3	57.2	62.6

주: 1) ()는 증가율을 의미함

2)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에서 경과보험료를 나눈 값임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과 보험설계사가 주요 채널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함

- 보험중개인 채널이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어 보험설계사 28%, 직접판매 25.3% 순임
-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 비중은 낮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표 24〉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2~2023년)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보험중개인	33.3	31.0
보험설계사	32.3	28.0
직접판매	24.4	25.3
방카슈랑스	5.1	6.8
온라인	4.9	8.9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10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73.1% 증가함

- 보험료수익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67조 루피어를 기록하였고 투자수익은 29.3% 증가한 7조 루피어를 기록함
- 총보험금은 44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는 30.2% 증가한 20조 루피어를 기록함

〈표 25〉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손익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ID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수입	53,813	54,283	53,920	59,932	74,429
보험료수익	48,476	49,120	48,953	54,236	67,062
투자수익	5,336	5,164	4,967	5,696	7,367
총보험금	31,056	33,487	32,664	35,829	43,928
총사업비	14,900	14,491	14,838	15,428	20,080
기타비용	-425	-176	-539	-1,570	1,261
세전이익	7,432	6,130	5,879	7,105	11,681
세금	937	989	898	1,215	1,484
당기순익	6,495	5,140	4,981	5,890	10,197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2023년 손해보험 운용자산은 133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자산 구성 중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채권 비중은 2019년 26.7%에서 2023년 42.9%로 16.2%p 확대되었고 규모는 57조 루피아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함
- 손해보험의 유동성 확보 특성으로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은 23.9%로 두 번째로 높지만, 소폭 축소됨
- 대출과 부동산 비중은 각각 8.7%, 1.0%로 낮은 수준이나,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16.9%, 17.1% 증가함

〈표 26〉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30,866 (33.7)	29,304 (30.9)	28,776 (27.5)	27,487 (24.9)	31,907 (23.9)
주식	4,996 (5.5)	5,126 (5.4)	6,045 (5.8)	5,510 (5.0)	5,715 (4.3)
뮤추얼 펀드	20,142 (22.0)	22,865 (24.1)	23,978 (22.9)	18,746 (17.0)	25,063 (18.8)
채권	24,412 (26.7)	25,763 (27.2)	33,980 (32.4)	46,890 (42.4)	57,200 (42.9)
대출	9,166 (10.0)	9,678 (10.2)	9,941 (9.5)	9,935 (9.0)	11,610 (8.7)
부동산	1,164 (1.3)	1,147 (1.2)	1,169 (1.1)	1,180 (1.1)	1,382 (1.0)
기타	789 (0.9)	871 (0.9)	856 (0.8)	759 (0.7)	399 (0.3)
총 운용자산	91,534	94,753	104,744	110,507	133,277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2023년 샤리아 손해보험 보험료는 5조 루피아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최근 연평균 16.5%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23년 보험료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5조 루피아를 기록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2조 루피아로 나타남
- 2023년 샤리아 손해보험 자산 규모는 11조 루피아이며, 투자 규모는 9조 루피아로 나타남

〈표 27〉 인도네시아 샤리아 손해보험 통계(2019~2023년)

(단위: 조 ID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험료	2.79	2.51	3.22	4.73	5.14
보험금	1.44	1.51	1.82	2.31	2.30
투자 규모	5.49	5.67	6.03	7.33	8.59
자산 규모	7.91	8.12	8.53	9.89	11.45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IV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 이상인 인구 대국으로 두터운 생산가능인구를 기반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금융 이해도와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는 초기 성장 시장임
 -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8%를 상회하는 젊은 인구 구조는 향후 수십 년간 보험산업의 핵심 수요층이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시사함
 - 실제로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 및 자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도인 특성상 샤리아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여전히 낮은 보험 침투율과 다수의 현지 및 합작 보험회사가 난립한 경쟁 구도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는 차별화된 가치 제안이 요구됨
- GDP 성장률이 꾸준히 5%로 견조하며,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하에 추진되는 제조업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정책은 기업 및 가계 보험 모두에 우호적인 거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수 시장과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연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프라보워 신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기초를 이어받아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 육성 및 식량·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산업 설비 및 기업성 보험(재산, 배상책임 등)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또한 자카르타의 과밀 해소를 위한 수도 이전(누산타라) 프로젝트와 전국적인 인프라 개발은 대규모 건설 보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및 공공주택 공급 등의 사회복지 정책 또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보전하여 간접적으로 민영 보험 구매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자연재해 리스크와 더불어, 자본금 요건 상향 및 금융권 옴니버스법(UU P2SK) 제정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요함
 - 인도네시아는 지진, 화산 폭발,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정교한 언더라이팅과 재보험 출재 전략이 수익성 및 지급여력 유지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기후 변화로 인한 자카르타 지반 침하 이슈는 장기적인 담보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최근 보험회사 자본금 요건이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되고 OJK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등 규제 장벽이

- 높아지고 있어, 자본 확충 및 규제 준수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사업 전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여전히 존재하는 관료주의적 행정 처리와 부패 관행, 해고가 까다로운 경직된 노동 시장 환경은 외국계 기업이 현지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비용과 법적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음
- 2023년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3%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이 57.6%, 손해보험이 42.4%를 차지함
- 생명보험시장은 경기 둔화·소득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판매 부진이 전체 시장 축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상해·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건강 보장 수요 증가로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해온 Unit-linked는 규제강화와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으로 크게 감소함
 -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높은 판매 인센티브로 인해 Unit-linked는 은행 채널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시장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자연재해 대비 수요 증가, 자동차 판매 회복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
 - 재물·건설·신용·보증보험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제3자 책임보험 의무화 논의에 따라 중기적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과 보험설계사 중심을 이루며, 의료비 상승 및 건강 보장 수요 증가에 따라 손해보험 내 건강보험 관련 위험보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과 달리 성장 초기 단계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에 대응하고,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헬스케어 역량을 접목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 외국인의 자본 보유 한도가 80%로 제한되어 있고 현지 네트워크와 규제 대응 능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금융 그룹이나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임
 - 한국 보험회사가 보유한 선진적인 상품 개발 노하우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모바일 기반의 미니 보험을 출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샤리아 적격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현지 사회에 기여하는 CSR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자약력

김유미 연구원 / 보험계리학 석사

손민숙 연구원 / 법학 석사

2025 해외보험리포트

인도네시아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